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수선화 향기 편지 끝에 묻어 보내

추사가 다시 좌부승지에 오른 것은 1835년 8월 23일이다. 이 해에 소치 허련(1809~1893)은 진도에서 대흥사로 초의 스님을 찾는다. 초의의 배려로 대흥사 한산전에 머물며 불화를 익혔던 그는 공재 윤두서의 화첩을 두루 섭렵하여 화안(畵眼)을 높였는데, 이러한 인연은 공재의 후손인 윤종영(1792~?), 윤종심(1793~?) 등이 대부분 다산의 다신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후일 추사는 소치의 괄목할 만한 재주를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의 슬하에 머물게 하였다. 조선 후기 걸출한 남종화의 대가, 소치는 추사와 초의의 깊은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두 스승과의 사제(師弟) 인연을 소중히 여겼던 그는 한양과 제주도, 해남을 오가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전했던 아름다운 전령(傳令)이였다. 〈완당전집〉〈여초의〉6신과 〈벽해타운첩〉에 실린 추사의 편지에는 초의와 이별한지 두 해가 되었지만 소식이 두절됨을 안타까워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행간에 가득하다.

그대를 보낸 지도 이미 두 해가 지났는데 갈라지듯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토와 범계의 나누어짐은 마치 은하수와 같아서 사다리로는 닿기가 어려운 듯, 편지가 도착했으련만 답장이 없으시군요. 나는 마음이 좁아서인지 대 원융의 경지에서(보더라도)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속제를 단절하고, 솔바람과 물에 비친 달을 벗 삼아 거듭 훌륭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겠지요. 어수선한 속세에서 목을 빼고 바라보지만 진실로 생각에 끌려서 한가함을 다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이 임금의 은혜를 입어 옛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벼슬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도판은 〈벽해타운첩〉이다.

임금님의 은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수미산으로 먹을 삼는다한들 이 마음을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철선 스님과 오랜 인연이 있는 분들도 모두 평안하시고 자재하신지요. 따로 편지를 쓰지 않았으나 나의 간곡한 마음이 전해지게 너그럽게 돌려보십시오. 아울러 전번에 말한 것을 거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바랍니다. 나머지는 편지로 다하기 어렵군요. 이만 줄입니다. 을미(1835)년 섣달 오경.

내가 편지를 쓸 때, 수선화가 만개하여 맑은 향기가 벼루 위에 뜨고 종이에 스며들었다

自送瓶錫 已經兩臘而截然無聞 淨土凡界判 若銀漢 理難梯接 至於有書亦無答 俗人自是腸窄 不能無感於大圓融之地 斷絶世諦 松風水月 必有更增精彩 區區塵寰中 引領瞻望 寔不勝牽想遙誦 居士 間蒙恩餉還處舊第 重理簪紱 感賁靡極 雖須彌爲墨 無以盡此 銕禪諸名宿 具吉祥自在否 無以另具 須轉及此款款之私 俾回慈觀 並伸前言 以副翹企 爲望爲望 餘歎草不式 乙未臘五夜 居士書時 水仙盛開 清香泛研沁紙

추사가 초의와 이별한 지 두 해가 되도록 내왕이 단절된 듯. 두 번째 상경이 후 대흥사로 돌아간 초의는 추사의 거듭된 소식에도 회신이 없었나보다. 추사는 '(초의가)속제를 단절하고 솔바람과 물에 비친 달을 벗 삼아 거듭 훌륭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에' 답신이 없는 것인가 반문하였다. 또 그가 다시 벼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임금의 은혜, '수미산으로 먹을 삼는다한들 이 마음을 다 드러낼 수는 없다'는 그의 충정을 어디에서 샘솟은 것일까. 수미산과 먹, 그 비유가 참으로 장대하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는 추사의 전성기이다. 이듬해 그는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이어 7월 병조참판에 낙점되었으니 경사가 이어진 것. 추사의 생애에서 가장 빛났던 출사(出仕)의 시기였다. 한편 추사가 거듭 초의에게 안부를 전했던 철선(鐵船1791~1858)은 수룡(袖龍1777~?)의 제자이며, 수룡은 아암(1792~1811)의 제자이다. 철(銕)은 철(鐵)의 고자(古字)이니 바로 철선을 말한다. 그는 다산의 전등계 제자였고 글씨에 능했던 인물로, 특히 추사가 아꼈던 승려였다. 한편 추사의 편지 말미에 '내가 편지를 쓸 때 수선화가 만개하여 맑은 향기가 벼루 위에 뜨고 종이에 스며들었다'고 하였다. 오야(五夜: 12시경)와 수선화는 아름답고 심오한 대칭, 유독 수선화를 사랑했던 추사, 편지 끝에 묻어 보낸 수선화의 맑디맑은 향기는 오래도록 초의의 마음에 남아 있었으리라.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작곡가 김동환은 … 193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1972년부터 1982년까지 계명대 음대 교수로 재직했고, 미국 유학 후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대 음대 교수로 재직했다. 1992년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과의 인연으로 찬불가 작곡을 시작했고, 1995년에는 그 해 창단된 불교방송의 가릉빈가 합창단의 지휘를 2년간 맡아 대한민국종교음악제 참가하는 등 불법 홍포에 기여했다. 2002년 정년퇴임 후 창작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부처님 노래 만들 땐 부처님 생각만 합니다

찬불가 작곡 20년 김동환 (작곡가 · 前 가릉빈가합창단 지휘자)

"최소아과 앞에서 전화하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기자가 들고 있는 사진 속 얼굴과 잘 연결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그의 자료사진은 그의 젊었을 때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멀리 골목 앞에 서있는 한 남자가 조금 전 전화기에서 들려오던 목소리의 주인인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얼굴이 확실하게 들어왔다. 그였다.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 사진 속에서 보았던 얼굴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의 한창 때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작곡가 김동환(75세 · 남)이다. 구랍 24일 그를 만났다. "내가 뭘 했다고… 쓸 게 없을 텐데. 더구나 '불교' 신문에서. 내가 찬불가 좀 썼다고 독실한 불자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더욱 쓸 게 없을 텐데." 그는 빙긋이 웃으며 기자를 걱정했다. 커피를 받아들고 그의 작업실을 겸한 집으로 향했다.

넓찍한 거실 한 쪽에는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검정색 피아노 끄트머리엔 분홍빛 연꽃등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이어폰 시대에 오랜만에 보는 큼직한 우퍼와 오디오. 방 하나에 수북이 쌓인 그가 좋아하는 음악들. 책장 가득 꽂인 악보들. 그가 만든 음악들. 오래된 공연 포스터와 안내 책자들. 흑백의 사진들.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의 청춘은 거기 있었다.

–선생님은 가곡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불가는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그는 오디오에 음반을 한 장 얹었다.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 합천 한 손 그대로 두루 쓰는 손. 올 때도 빈발 갈 때도 빈 발 합천 한 발 딛고 그대로 두루두루 걷는 발. 이 세상 올 때도 흙에서 오고 갈 때도 흙으로 가는 합천 한 몸. 한 몸 깊은 가운데서 정에 들어 죽은 몸 들이 쉬고 내쉬는 숨결음은 영원해. 청산에 흐르는 물은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룬 한 방울은 세상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음을 음지양지 없는 나무 만 가지 꽃이 피니 향기 두루 그윽하여 만 가지 맛을 볼 뿐이로다."

대행 스님 작사, 김동환 작곡 찬불가 '빈손'이다.

"제가 처음 만든 찬불가예요. 얼마 전 열반하신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말씀에 곡을 붙였습니다. 1992년쯤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대행 스님이 계시는 한마음선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한테 좋은 일 한 번 해보겠냐면서 대행 스님 말씀 가지고 노래 하나 지어보라고 해서 곡을 하나 써서 드리게 됐죠. 그 때 처음 '찬불가'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 대행 스님의 곡을 많이 쓰게 됐죠." 그는 '지계의 노래', '무상계송', '임의 소식' 등 이후로도 10 여 편의 대행 스님 법문으로 곡을 쓰게 된다. 그의 불교와의 인연은 그렇게 그의 아내로부터, 대행 스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는 그해 불교방송이 주관하는 '찬불가 보급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1995년 불교방송에서 창단한 어머니합창단 가릉빈가 합창단의 지휘를 맡게 된다. 그는 2년 동안 합창단을 맡게 되는데, 그가 만든 찬불가의 대부분은 그 때 만들어진다. 그는 지금까지 50여 편의 찬불가를 작곡 발표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부처님 이르시네', '한마음 있음이여', '길을 갑니다' 등이 있다.

–불교와의 인연은 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개체가 찬불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본인의 종교는 없었나요?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션스쿨인 연세대 음대를 나왔습니다. 그 때 연세대에 입학하기 위해선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종교도 함께 졸업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에게는 종교도 '다니는' 것 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내가 먼저 절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내가 절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절에 다니라고 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불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교리도 잘 모르고, 공부한 것이 없어서 불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는 스님도 없고 다니는 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절에 다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데 다는 것보다 절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라고 했지요. 그리고 한마음선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는 미션스쿨인 연세대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듯 교회도 다녔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종교도 졸업한 것이다. 그는 "불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고 했지만, 그 '못합니다'라는 말이 그는 이미 불자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자는 생각했다. '못합니다'란 말에는 말과 다른 신뢰가 있었다.

> 대행 스님 법어 10여 편 찬불가 작곡
> 불교방송 합창단 2년 지휘
> '한마음 있음이여' 등 50편 발표
> 찬불가 대중화보다 질적 향상 중요

–선생님에게 '찬불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된 곳인데, 작곡가로서 찬불가를 만드실 때, 다른 장르의 곡들과는 다른 마음가짐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곡이든 찬불가든 저에겐 모두 '음악'입니다. 작곡가에게 '음악'인 거죠. '일반곡'과 '찬불가'라는 구분부터 저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에겐 다를 수 있겠지만 만드는 저에겐 한가지 음악입니다. 여러 주제와 소재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을 노래한 곡이 있고, 자연을 노래한 곡이 있고, 부처님을 노래한 곡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해야 할 땐 사랑을 생각하면서 곡을 쓰는 것이고, 자연을 이야기해야 할 땐 자연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이야기해야 할 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곡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불교방송 합창단의 지휘자로 선임되시고 그 이후로 많은 곡(찬불가)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맡고 보니 곡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곡, 부를 곡이 없었습니다. 당장 이듬해 종교음악제에 나가야 하는데 래퍼터리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찬불가들이 있었지만 그는 좀 더 다양한 찬불가를 만들어 음악제에 나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과감한 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찬불가가 많이 나오기 위해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며 그 때를 회상했다. 그는 2년 동안 합창단을 이끌면서 2권의 합창곡집과 음반을 냈고 불교방송, 평화방송, 기독교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종교음악제'에 그의 칸타타 곡 '사바의 바다'를 가지고 참가해 불교의 위상을 높였다.

–좋은 찬불가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포교 차원에서 찬불가의 대중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불가의 대중화라는 말보다는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급의 차원도 단순히 양적인 기회가 아니라 질적인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의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찬불가가 가요나 팝송처럼 대중화 되기란 힘들다고 봅니다. 성격과 정체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대중화보다는 양적, 질적인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합창단을 맡고 찬불가를 쓰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종교 안에서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곡, 수준 높은 편곡, 수준 높은 합창단, 수준 높은 발표의 장,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찬불가들이 늘어간다면 그것이 찬불가의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찬불가는 1920년 용성 스님에 의해서 시작된 후 곡의 수는 천 여곡에 이르고 있지만 대중의 입에 머무는 곡은 많지 않다. 그는 많은 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리는 곡이 적은 것은 보급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찬불가들은 성악곡이나 합창곡으로 작곡돼 일반이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새롭게 편곡해 부르기 쉽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급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보급의 문제가 대중화의 문제라고 말했다.

–2002년까지 강단에 계셨는데, 정년퇴임 후에 생활의 변화가 있다면?

"퇴임하고 난 후에 곡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 동안 쓴 가곡이 180곡 정도 되는데, 거의 퇴임하고 썼습니다. 재임 중엔 기악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는 오디오에 그의 대표 가곡 '그리운 마음'을 얹었다. "바람은 불어불어 청산을 가고, 냇물은 흘러 천리를 가네. 냇물 따라가고 싶은 나의 마음은 추억의 꽃잎을 따라 가며 가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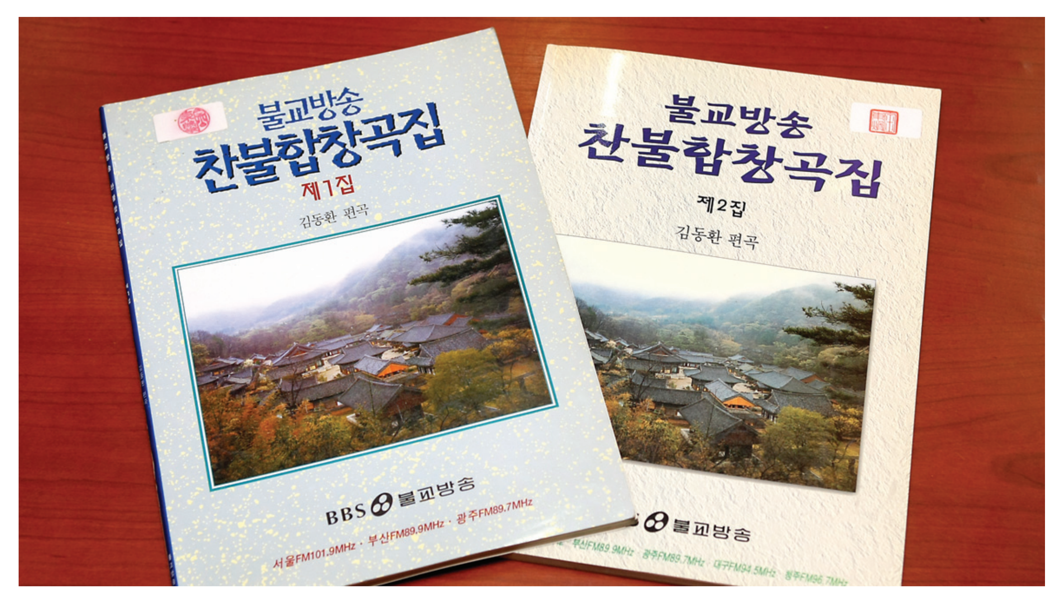
곡이 끝나갈 때쯤 그는 책꽂이에서 그의 가곡집 '김동환 가곡집 내 마음의 노래' 한 권과 '가릉빈가의 합창' 음반 씨디를 하나 건넸다. '삼보의 노래', '이 공양 받으소서', '부처님은 이르시네' 등 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는 찬불가를 그의 작품세계에서 따로 떼어 이야기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자신을 '불자'라고 따로 붙여 놓지도 않았다. 음악인으로서 음악을 할 뿐이고, 부처님 노래 만들때는 부처님 생각만을 할 뿐이다. 그래야 찬불가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부처님은 그런 존재이고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플레이어에 음반을 하나 얹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 선사의 '청산은 나를 보고'에 곡을 붙인 그의 곡이다. 그의 가곡집에 수록되어 있었다.

–선생님 새해 소망하시는 것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그냥 소중할 뿐이죠. 하루 종일 음악만 들을 수 있어도 더 이상 좋을 게 없고, 어쩌다 부처님 생각해야 할 일 하게 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지요. 굳이 소망이라면 새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소망이죠."

문을 나서면서 진정한 불자란 무엇일까. 생각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리 공부 많이 한 사람? 스님 많이 아는 사람? 보시 많이 한 사람? 그 날 만큼은 '부처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방송이 창단한 가릉빈가합창단의 초대 지휘자로 있는 동안 그는 2권의 찬불가 합창곡집을 냈다.

전법일기

"시골 절에 젊은 불자가 많네요"

첫 말사 주지 부임기

10여 년 전 처음으로 말사주지를 맡아 인수를 받을 때, 전임 주지스님께 들은 기도법회와 신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정기법회와 기도는 없고, 연중 정초와 초파일, 칠석과 동지기도불공을 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초하루 기도법회를 정기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전임 주지스님이 말씀하시길 "아마도 세 명 정도가 오거나 아무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그 다음 달 초하루를 맞이하면서 그 말이 사실임을 실감하였다. 정말 세 분의 불자님들만이 초하루에 절에 오셨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 절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 인보살님과 명보살님 그리고 수미보살님이 그 분들이다.

도량주변은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했고 법당 안으로 칡넝쿨이 줄기를 뻗어가고 있었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인데도 주지로 들어가서 한 달이 지나도록 사람이라고는 10명도 오지 않았다. 이런 열악한 사정 때문이었을까. 전임 스님은 고시생을 들이고 흑염소를 키워서 절 살림을 충당했다고 하였다.

임명장을 받고 4개월여 쉼 없이 건물을 청소하고 도량주변을 정리한 다음 가까운 도반들을 청해 조촐한 취임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 왔던 몇몇 도반들은 무척이나 궁벽한 산사에 주지를 살려고 하는 나에게 혀를 끌끌 차면서 질책과 위로의 말을 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 볼품없고 어려운 절에 주지를 왔느냐, 제정신이냐?" "살림은 힘들겠지만 큰 스님들이 사시던 곳이고, 도량이 좋아 보이니 잘 살아 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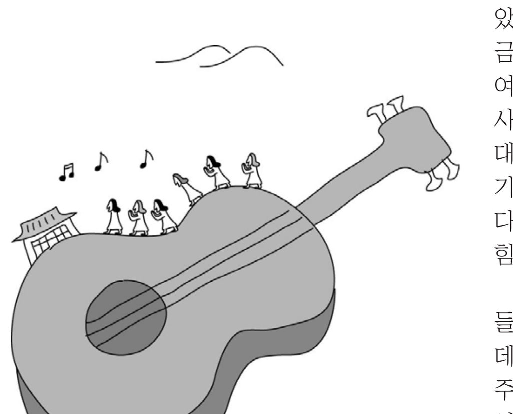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 한달 지나도록 신도 10명도 안와
> 첫 임기동안 시주금 아껴 도량 정비
> 이제는 지역 문화도량 '자리매김'

그나마 몇 달간 애를 써서 사찰의 분위기를 많이 바꾸었는데도 그 정도였으니, 처음 절의 상태를 보았으면 무슨 험한 말이 나왔을까 등줄기가 서늘하였다.

첫 번째 임기를 마치기전에 수십 년 숙원사업이었던 산신각불사를 끝냈고, 계속된 울력에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을 만큼 신심과 열성으로 살았더니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한 푼의 시주금도 헛되이 쓰지 않고 건물을 보수하고 신축하여 템플스테이를 시작하였다. 누구든 인연이 닿는 사람은 함께 살도록 하였더니 절에서 상주하는 대중도 10여명으로 늘었고 사찰에는 늘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때때로 큰 절의 어른스님들께서 다녀가시고는 칭찬을 하기도 하셨는데 고맙고 큰 힘이 되었다.

수년 전부터는 여름 · 겨울철 안거 때마다 신도들 20여명이 함께 본사 선원에 대중공양을 가는데 그 때마다 방장스님께서는 따뜻한 덕담을 해주시곤 한다. "허허, 부석사 신도들이 우리 말사 신도들 중에 제일 젊고 고운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좋은 인연을 지으세요. 그리고 부처님 인연을 귀하게 지니도록 하세요."

벌써 10년째 진행한 산사음악회는 서산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았고, 절에 법회와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한 사람들은 시골 절의 신도들이 젊고 활기찬 것에 놀라곤 한다. "아니, 시골 절에 젊은 신도들이 왜 이렇게 많지요? 도시 절보다 많은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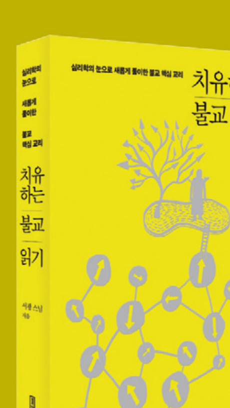
처음 며느리와 딸을 절에 데려오라고 했을 때 노보살님들이 흔쾌해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다.

노소가 잘 화합하지만 때로 노보살들이 자신들의 며느리나 딸들에게 샘을 내고 질투를 하기도 한다. "주지스님이 너무 젊은 불자들만 위하면 안돼요"라는 투정이 재미있고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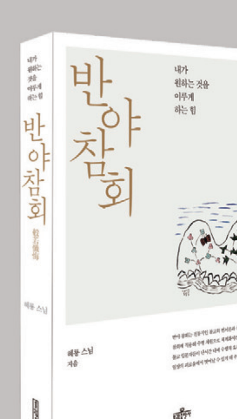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선택한다!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정직한 행복학 강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생각들……
이 생각들 속에 행복이 있을까?
우리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
가만히 내게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것이 있다.
그 속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
최신간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의 습관과 홀가분하게 이별하기
심리학자 김정호 지음 | 224쪽 | 13,000원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읽기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여는 글〉 중에서
서광 스님 지음
288쪽 | 14,000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반야 참회
'반야 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 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혜룡 스님 지음
288쪽 | 13,000원



불광출판사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 지 순 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나.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